



△長津江水力發電所

그리운 長津江아!

잃어버린

내 電氣王國이여!

<1>

金 野 麟

머리말

8·15에 이어 6·25를 전후해서 북한의 전기 관계 인사들이 어림잡아 5백명은 월남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동북지구만 약 2백명).

이제 세월이 덧없이 흘러, 20대의 청춘이 어느덧 70을 바라보게끔 되었고, 30대에 월남해 온 인사들은 이미 80을 넘었거나 또 80을 눈앞에 두고, 인생의 마지막 고갯 마루에 다다르고 있다. 험난한 세월의 뒤편에서 하루가 다르게 타계하는 분이 늘어, 지금은 생존자가 고작 150명을 헤아릴까 말까하는 그런 정도라고 듣고 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어서, 8·15 해방후 4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우리들의 기억도 그만큼 멀리 사라져 가고 있다. 지신의 나이테(연륜)가 이미 우리들의 '몸'과 '기억'의 고비를 더 넘지 못할만큼 팍 차 버렸기 때문일까.

사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몇 해안가서 8·15 후의 북한 전기사(電氣史)를 제대로 말해 줄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듯 꼭질 많았던 북한의 '전기'에 대해 옹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증인도 몇사람 남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생존해 계신 몇몇 월남 전기인 인사들의 성실한 증언과 또 일찍이 요직(상공부 전기국)에 있었던 분들의 귀중한 자료에 바탕을 두어, 이 글을 엮게 된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원고작성에 도움 말을 주신 여러 분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표 1).

8·15 해방—이모 저모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의 북한의 상황, 특히 소련군의 침공작전으로, 일·소 양군의 격돌로 갑자기 전쟁터가 되어 북적대던 동북지방(함경남·북도)의 상황부터 먼저 적어보기로 한다.

金應淵선생은 그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북선 합동전기(北鮮合同電氣·함남 함흥)에서는 '해방'이 되자마자 이노우에(井上清)사장을 비롯한 전체 일본인들이 저희들끼리 몰래 수근대며, 한국인 간부나 직원들 그리고 종업원을 마치 무우쪽 자르듯 제쳐 놓고 저희들만 멋대로 퇴직금이며 월급이며 그 밖의 수당을 합쳐 두둑히 챙겨가지고는 나중에 하는 말이 "이렇게 두 손을 합장해서 조선의 해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요사를 부리더니 이어 "이 뒤의 일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하면서 전성으로 사무를 인계시킨 뒤에 손을 털고 물러나더라는 이야기였다.

한 일본인 간부가 '기말우쓰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의 사본) 1부를 꼭 갖고 싶다면, 코가 땅에 닿도록 간청했지만 본부(경리부장 安鎔彪)에서는 이를 깨끗이 거절해 버렸다는 후문도 있었다. '해방'의 감격과 혼미가 뒤범벅이 되어서 모두들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때는 멍하니 허탈감까지 느끼고 있었는데, 그 육중한 소련군 T-34형 탱크가 지축을 흔들며 '함흥'에 진주해 왔다.

그게 8월21일이었다. 사흘 뒤인 8월24일에는 북조선 진주 소련군 사령관(제25군) 치스차코프 대장이 막료를 이끌고 비행기로 함흥 '연포 비행장'에 내렸다.

치스차코프 일행은 다음날 곧 바로 평양으로 떠나갔는데, 이때부터 '공산당'(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간판이 버젓이 나붙더니 뒤이어 '인민위원회'도 생겨났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소위 함남도 인민위원회(朴承哲)에서 대뜸 우리 '북선합동전기'를 관리한다고 나섰던 것이다. 모두들 일손을 놓고, 어리벉벉하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마비된 기능을 우리 손으로 회복한다며 '운영위원회'(7인)를 직장인 스스로 뽑기로 마음을 굳혔는데 그게 9월 초순께 일이었다. 그 운영위원은 사무계통이 金鳳柱 金應淵 金斗榮 辺順根, 기술계통이 韓承彬 朴道善 申鳳均 諸氏였으며, 이것

으로 처음 본사에 운영위원회(위원장 金鳳柱)가 발족됐다. 이 운영위원회는 한달 후인 10월 중순에 가서 그 진영이 다시 개편(위원장 朴貞瓊)되었다. 이때부터 직장에도 혁명세력이 서서히 침투해 오면서 어느새 '직업동맹'(노조)이 생기고 '세포위원회'도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다.

이 무렵 본사 관내의 지방 상황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9월 초순께 '원산지점'에서 본사(함흥)에 급한 전화가 왔는데 '원산지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누가 와서 수습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래서 수습차, 金應淵선생을 그곳으로 떠나 보냈다.

함흥서 고원(高原)까지는 요행 기차를 타고 갔으나 거기서부터 기차가 끊겨, 백터도 넘는 길을 터벅터벅 도보로 걸어서 '문천'을 거쳐 가가스로 '원산'에 닿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원산'에서는 소련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8월21일 아침, 순양함 2척을 앞세운 함정 12척(태평양 함대 소속)으로 편성된 소련 해군이 원산항(함남)에 들어와, 먼저 2개 소대병력을 상륙시켜, 재빨리 원산 시내에 배치시켜 놓았다.

김일성 일파(金策, 崔賢, 金一, 許가이 등...)가 소련 상선 「뿌카초프」호를 타고 '원산'에 은밀히 상륙해 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8월23일)

〈표 1〉 본고에 도움 말을 주신 분들

이름	8·15전후 근무처 (8·15전/8·15후)
金應淵	北鮮合同電氣本社총무과장/北韓東北配電部총무부장
李泰俊	朝鮮總督府 電氣局/韓國 商工部 電氣課長
李聖鍾	北鮮合同電氣本社기사/北韓 東北配電部 공무과장
韓明鍾	北鮮合同電氣本社 기사/北韓 東北配電部 공무과기사
金宗秀	北鮮合同電氣淸津支店기사/北韓 淸津 密電所長
韓承格	滿洲國興農合作社理事/韓國協和電機工業(株)專務

※ 筆者 金曠林(筆名 野鷲)

前北韓 東部配電部 淸津支社 총무부장

의 일이다.

북쪽에서 쫓겨 온 일본군 패잔병이 9월 초순께 '원산' 와우산 언저리에서 소련군과 맞서, 드르륵 땅땅... 하고 밤새 콩볶듯 막판 싸움을 벌이다 이튿날 그들은 고스란히 무장해제를 당하고 말았다.

어쨌든 '원산지점'의 분류는 수습을 보아 그런대로 매듭 짓고, 본사에서는 일단 한숨을 놓았다. 해방후 본사의 권위(?)를 보여준 첫번째 케이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은 자꾸만 꼬이기 시작했다.

10월 초순께, 뜻밖에 북선함동전기 서울사무소(서울 태평로, 지금의 한국외환은행 태평로지점 자리)에서 '일본 사람들이 저희들만 월급일량 퇴직금일량 타먹구, 우리 한국사람 직원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버렸으니 빨리 생활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다급한 소리로 장거리 전화가 걸려 왔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서울사무소를 정식으로 인수하기 위해 全應淵선생을 파송키로 했다. 이때 장병택씨(나진), 현시학씨도 함께 동행하여 38선을 넘어 서울로 갔었다. 서울사무소에 들어서니 예상한대로 산만하고 썰렁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은행예금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적산자금」이라해서 동결시켜 놓곤 풀어주질 않았다.

그 부럽 서울은 미 군정 밑에서 벌써 우후죽순격으로 별의별 정당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우익이니 좌익이니... 나중엔 '찬탁'이니 '반탁'이니 하며 온통 정치판이 벌어져 한창 야단법석하던 때였다.

그러니 이렇게 사회 질서가 하두 어수선해서 뭐가 된지 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모두들 먹자판이었는데, 그래도 파견되어 온 일꾼들은 나름대로 이것 저것 수습을 하면서 정세가 안정되면 자리가 잡히겠지 하고 부산히 뛰어다니다가 뒷일을 장모씨에게 맡기고 이듬해 1월에야 쏜선생은 본사(함흥)로 돌아 왔다.

38선이 나날이 굳어져 제법 삼엄한 장벽같이 되면서부터 서울과의 왕래도 점점 뜸해졌다. 간간히 풍문에 서울사무소의 소식을 듣자하니 사무용 집기며, 자동차며, 변압기며, 심지어 몇채의 사택(신당동)까지 장모씨가 적당히 처분해서 혼자 꿀꺽해 치렀다는 말이 들려 왔다. 뒤에 알고보니 그것이 사실이였다. 이리하여 서울의 회사 재산은 불가사리에게 진탕으로 녹여 먹히고 말았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저 멀리 청진지점(함북)에서는 북선함동전기 본사(함흥)와 손을 끊고, 아예 도단위(道單位) 체제로 배전사업을 운영하겠다는 풍설이 자자하게 나돌았고, 또 나진지점(함북)에서는 두 파(劉씨, 廉씨)로 갈리어 밤낮 격렬한 주먹다짐까지 벌이고 있던 그런 험한 판국이었다. 더구나 함북 일대는 8·15 당시, 소·일 양군이 격전을 치른 전투지구여서 문제가 더 심각했었다.

이야기는 8·15전으로 되돌아가 8월 9일(1945) 오전 10시 50분께 갑자기 소련 폭격기 6대가 청진 동쪽 바다에서 저공 비행으로 날아와, 어업조합 부근의 부둣가와 우편국(우체국) 일대며, 그리고 신암동을 마구 폭격하고 사라져 갔다. 검은 연기가 군데군데 하늘로 치솟았다. 그런데 시민들은 소련이 이날 대일선전(對日宣戰) 포고를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날 새벽에 이미 羅津과 雄基가 소련 폭격기의 맹렬한 피습으로 사람들이 피난소동을 벌였다고 했다.

8월 13일부터는 소련군의 청진상륙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8월 13일) 대낮부터 맹렬한 함포사격이 시작되더니 오후 2시쯤 여러 척의 쾌속정이 어항(漁港) 쪽을 향해 물보라를 치며 내달아 왔다. 제철회사(月鐵) 연안에 쾌속정이 들이닥치더니 그 속에서 3백명 가량이 소련군이 쏟아져 상륙했다.

이때부터 쌍방에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13일과 14일에 걸쳐 輸城 평야를 중심으로

소·일 양군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있었던 것이다.

8·15에 따른 電氣部門의 被害

8·15 북새통에 발전소를 비롯해서 변전소 등 전기부문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일본인에 의한 자폭과 소련군에 의한 강제철거 등으로 한때 북한의 전기는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었다.

저 유명한 수풍발전소(水豊發電所)는 그 시설이 크니만큼 수난도 대단히 컸었다. 8월 그믐(1945) 평북 도인민위원회가 수풍을 접수했는데, 한달 후, 8명의 소련군 장교가 나타나더니 “소련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스이호(수풍) 발전소의 해체를 단행한다”면서 설계도며 기술관계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종업원 전원이 들고 일어나 결사반대하고 나서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발전소안팎을 카메라에 담고 살살이 세부를 체크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그런데 며칠 뒤(11월 3일) 약 3천명의 소련군이 트럭에 실려 수풍에 밀어닥쳤다. 60명의 소련군 기술장교들은 히로다(廣田種雄) 소장을 앞세워 그날부터 3천병력을 3교대로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3호, 4호, 5호기). 10만kW 발전기 2대(북한측 1대, 만주측 1대), 수차(水車) 14만 마력 3대, 변압기 2대, 배전반 3대, 개폐기 3대 등. 그 밖에 수 많은 중요부품과 각종 기재가 뜯겼다.

그밖에 다른 지방에서도 전기시설물과 전기자재가 슬하하게 약탈 당했던 것이다. 그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같은 전기기재가 저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있는 드니에쁘르 발전소로 운반되어 갔던 것이다.

제 2차 세계 대전때, 우크라이나에 침공해 온 나치스 독일군이 그곳을 점령(1941)했는데, 그 후 소련군이 반격에 나서 탈환 작전을 펴서 마침내 드니에쁘르 강에 도달했을 때(1943. 9. 24)

드니에쁘르 수력발전소는 여지없이 파괴되어 있었다고 한다.

전투지구인 함북도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金宗秀씨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상세히 증언했다. 청진(淸津)변전소는 흥남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최대용량(220kV)을 자랑하던 변전소였다. 그런데 소련군이 청진 상륙작전에 들어갔다는 정보에 따라, 8월 12일 밤에 마사끼(伊木達雄)라는 일본인이 불을 질러 자폭해 버렸다. 도방위 본부(威北道 防衛本部)에서 제 98호 비밀지령이 내려 왔던 것이다. 220kV용 8만kW 주변압기 2대와 110kV용 1만 5천kW 주변압기 4대(5대 가운데)가 이때 모두 타버렸다.

이밖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 부령(富寧) 발전소(2만 8천kW)의 3개 발전소 가운데 제 1, 제 2는 자폭으로 완전히 전멸상태였고, 제 3 발전소만이 간신히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다. 城津과 吉州의 두 곳 변전소도 허천강 제 4 발전소로부터 수전하고 있었는데, 자폭에 겹쳐, 소련기의 목적으로 주변압기가 모두 파손됐던 것이다.

그래서 우선 청진변전소 복구작업부터 착수했는데, 전기자재가 귀하다 보니 무척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불에 타버린 20kV, 66kV, 15,000kVA 변압기 4대 가운데 2대를 겨우 고쳐 가지고 일부 송전에 성공했다.

철심은 그대로 쓰고 코일은 모두 테이핑 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실 그 당시 여러 기술자들이 잠을 설치다시피 하면서 정성과 열의를 다해 가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냈다.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난 뒤에 마침 남포변전소 증설을 위해 보관중이던 10만kVA 변압기 1대를 청진으로 돌려 보내줬다.

수리를 끝마치고 나서 10만kVA 준공과 함께 비로소 허천강으로부터 송전과 똑같이 220kV로 수전을 하게 됐다. 그것이 아마 1947년 1월 초 순계의 일이다.

자폭에 대한 말이 났으니 말인데, 8·15 직전

에 이미 군(조선군 사령부:서울 용산) 당국에서
 는 일단 유사시 함북 일대에 살고 있는 일본인
 피난계획과 함께 이적시설물(利敵施設物) 자폭
 에 관해서 세밀히 짜여진 극비명령을 조선총독
 에게 전달(1945. 4월 초순)한 바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는 일본인 피난계획과
 자폭명령을 한데 묶어 「제98호 계획」이라고 지
 정(1945. 7월 상순)해서 극비사항으로 함북도
 지사에게 시달해 뒀던 것이다.

청진에 대해서 소련군의 상륙작전이 전개된다
 는 확실한 조짐이 나타나자 도방위본부에서는
 즉각 98호 비밀지령을 시달했다. 청진 변전소와
 일철(日鐵)공장 같은 중요 시설물에 대한 자폭
 은 모두 98호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청진변전
 소의 자폭으로 함북 일대가 거의 전원(電源)을
 잃었다.

그래서 전기와 수도는 물론 일체의 전기통신
 망까지 모두 끊기고 말았다. 흡사 원시사회로
 후퇴한 것 같은 암흑세계에서 일본천황(히로히
 도)의 중대방송(포스담 선언 무조건 수락)도 물
 론 알 까닭이 없었다.

8월15일 낮 12시의 벅차고 감격적인 그 순간
 을 함북 일대의 주민들은 허공에서 전파를 놓치
 고 말았던 것이다.

청진과는 달리 이것은 자폭은 아니지만 흥남
 (본궁) 4개 변전소에 있던 220kV 8만kW 주
 변기 2개 가운데 1대를, 또 용흥변전소의 변
 압기 1대를 소련군이 철거해 가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문평변전소(文坪製鐵所·함남)
 에서도 66kV 40,000kVA 변압기 1대를 철거해
 간다고 소련군과 한국인 기술자 사이에 옥신각
 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1년동안만 빌려
 쓴다며 소련으로 반출(1947. 5)해 갔지만 그후
 몇 해가 지나도록 감감소식이었다.

비단 전기부문에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었다.
 여러가지 설비기체며 공작기체며 부품 따위 등
 북한 전역에 걸쳐 중공업 시설은 물론이고 각종
 산업설비와 원료, 제품까지 정말 엄청난 물자가
 소련군 사령부 직속의 소위 「평화건설부대」에

의해서 마구 해체되거나 수탈되어 소련으로 반
 출되어 갔다.

제2차 대전 막판에 동삼성(만주)에 쳐들어
 온 소련군은 싸움이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만주
 에서도 이룩한 중요 산업시설과 기재, 원료, 그
 리고 제품 등(1945. 12~46. 5) 자그마치 20억
 달러어치의 어마어마한 물자(물자의 적재화차
 길이가 연 400km)를 소련땅으로 싣고 갔다(1946.
 12. 12 포레 사절단 보고서). 북한에서는 붉은
 군대 사령부 발행의 군표(1945. 10. 1~1947.
 12. 6)를 2년동안에 무려 100억원이나 남발해
 가지고 그 붉은 딱지 하나로 군 보급물자와 술
 한 물건을 군인과 그 군인가족들이 챙겨가기까
 지 했던 것이다.

北朝鮮電氣總局이 發足되기까지

1945년 9월 하순께 나진지점에서 업무과 사
 람 셋(劉啓鍾씨 등)이 청진지점으로 쫓겨벌떡
 달려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판국이나?”
 며 한탄을 하는 것이었다. 듣자하니, 노조가 어
 리숙한 사람들을 총동시켜 사무계통 간부를 다
 짜고짜로 친일파와 반동분자로 몰아친다는 것이
 다. 그때의 나진지점 상황은 한마디로 엉망이었
 다. 그들 세 사람은 설 땅을 찾지 못해 한숨을
 치쉬구 내리쉬면서 마음을 꺾고 있었다.

청진지점도 지방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멋대
 로 배전회사를 토막토막 접수하던 사태여서 난
 감하기는 청진이나 나진이나 엇비슷했다.

그래서 하두 답답한 심정에서 그 같은 해답을
 행여 본사(함흥)에 가거나 풀어 볼 셈으로 나진
 지점에서 한사람과 청진지점에서 한사람씩 함께
 남행열차에 올라탔다.

말이 남행열차지 사실은 콩나물 시루같은 화
 물차 궤 속에서 술한 사람들이 처박혀 서로 아
 귀다툼을 하는 북새판이었다.

같은 고생 끝에 겨우 함흥역에 닿았다. 궤 속
 에서 풀려나니 정말 살 것 같았다.

그런데 함흥역 앞 광장에 높다랗게 세워진 선

전탑을 보는 순간 멈칫하고 발이 저절로 멈춰지고 말았다.

그 내용은 스탈린을 찬양하고 남한 우익 인사들을 매도하는 내용들이었다.

유난히도 붉은 글발들이 가슴을 섬깃하게 했다. 몸이 으시시한 김에 두 사람은 길가에 있는 노점 술집에 걸터 앉았다. 한잔 또 한잔, 진정 혼 혼하고 다사로운 「해방」이 이 한잔 속에 있구나 싶었는데, 느닷없이 “아주바니! 이제 그만 하우다. 이게 좀 거북한 술이라서...” 모처럼의 흥을 잡치는 술집 주인의 말이 떨어졌다. 그것은 워낙 술이 귀한 시절이어서 희석한 공업용 메틸 알콜(메타놀)이 소주로 둔갑해 팔린다는 얘기였다.

“웬, 별말씀을, 한잔만 더!”... 그러나 위험수위가 훨씬 넘었다며 “이제는 정말 아니렘메” 하고 종시 내쫓기다시피 자리를 뜨고 말았다. 다음은 했지만 그래도 이틀날 퍼렇게 살아서 본사를 찾아가더니 생면부지의 초면인 여러 직원들이 “아이구, 싸움터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며 정말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10월 상순께, 뜻밖에도 평양(西鮮合同電氣)에서 장거리 전화가 함흥 본사에 걸려왔다.

“전기관계로 협의할 일이 있으니 속히 대표단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뭔가 한줄기 서광이 비친듯, 모두들 활기를 되찾았다. 그래서 본사에서 이틀동안 대책 수립을 거듭한 끝에 부랴부랴 대표단을 구성해서 평양에 파송키로 했는데 그 대표단은 다음과 같았다.

즉, 威興(本社)代表 朴道善, 羅津(支店)代表 劉啓鍾, 淸津(支店)代表 金光烈, 러시아語通譯 千命基 등이다.

동북 대표단 일행이 서평양역에 내린 것은 10월 14일 오후 5시쯤의 일이다. 터벅터벅 기림리를 걸어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며 보니, 그 입구에 김일성 환영 군중대회를 연다는 내용의 아이형의 문이 영성하게 세워져 있었다. 바로 그 날에 처음 환영집회가 열렸다고 했다.

동북 일행이 선교리 어느 구석진 여관에 자리를 잡고 박도선씨가 서전(西電)에 전화를 걸었더니 금방 한 사나이가 여관으로 달려 왔다.

서선합동의 대표李文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키가 작달막한 짜임새 있는 체구에, 나이는 40을 두 셋 넘었을까말까 했는데, 머리는 희끗 희끗 반백이었다.

말끔한 건물의 서전은 8·15의 격동 같은, 그러한 흔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각 부처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퇴직금도 타먹고 월급도 매달 꼬박꼬박 받아온 탕도 있겠지만 우리 동북지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모두들 구김없는 양복에 흰 바탕의 와이셔츠며, 무늬 빅타이며, 날선한 차림새가 마치 귀공자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동북의 우리 일행, 특히 청진과 나진의 두 사나이는 퇴색한 국방복에다가 찌그러진 구두며 까까중 머리에, 더부룩한 수염까지, 그 피죄죄하고 초췌한 볼품이란 참으로 말이 아니었다.

이문환이가 측은하게 생각해서 깡마른 우리를 몸보신 시키느라고 그 유명한 평양 불고기 집으로 매일밤 끌고가서 분에 넘치는 융숭한 대접을 받기도 했다. 그 다음날부터 이문환 대표와 동북 일행이 몇차례 회담을 가졌었다. 이문환은 그때 매일같이 인민위원회(북조선 5도 행정국)와 로마빙코 사령부를 왔다갔다 하며 몹시 바쁜 모습이었다.

하루는 우리 일행을 사장실로 부르더니 “우리 이렇게 합세다. 서전과 북전이 한데 통합해 볼세다” 밀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곤 우리 일행의 눈치를 뚫어지도록 살피더니 나중에 그 까닭을 열심히 설명해줬다. 인민위원회 고위층의 의견도 그렇고 더욱이 로마빙코 사령부의 방침이 모든 전기사업 계통은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 극구 주장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 통합이 되면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규나 갈등, 그 밖의 모든 문제가 일도양단격으로 척결된다고 그는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는 다소 난색을 표하면서 본사(함흥)에

장거리 전화로 문의해 왔더니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대답이었다. 그래서 서전과 북전의 배전부 통합은 예상보다 빨리 쉽사리 이루어졌다.

다음날, 이문환은 “발전부가 큰 문제”라면서 지방에 흩어져 있는 수력발전소에 장거리 전화를 거느라 부산을 떨었다.

가뜩이나 산 골짜기에서 소외 당하고 있던 수력발전소 사람들이 전화를 받자, 저마다 뽕박질 하다시피 평양으로 달려 왔다. 혹시나 서울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왔나? 해서….

북한에 있던 수력발전소는 이미 통합되어 서울에 본사(朝鮮電業)가 있었으며, 미 군정하에 尹日重씨가 시장대리로 있었다.

발전부 사람들이 이문환이를 만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수력발전소(부전강, 장진강, 허천강 수풍)를 몽땅 배전부에 통합시켜야 된다고 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모두들 뒤에서 “제까짓 이문환이가 감히 어찌 그런 말을 꺼낼 수 있겠느냐”며 필쩍 뛰었다.

“우리들의 본사는 지금 엄연히 서울에 있는데 윤일중 사장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누가 함부로 한다고? 원, 별 똥만지 같은 소리를 다 하네” 하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흔히 발주배종(發主配從)이라 하는데, 주인격인 발전부가 배전부에 얹혀 더부살이 신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무렵, 이문환은 서울에 장거리 전화를 몇차례 걸어서 윤일중씨를 평양으로 초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곤 했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혹시 소련 군정에서 직할(직접관리)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발전부 사람들을 은근히 위협하기도 했다.

“어쨌든 동무들이 당장 먹구는 살아야할게 아이오? 살림은 배전부에서 알뜰히 맡아 할테니 쓸데없는 고집일랑 버리시오” 이런 식으로 달래기도 했다. 그게 어떤 때인가. 사실은 입에 풀칠을 한다는 것에 더러는 귀가 솔깃해졌다. 이리쿵 저리쿵 욕신각신하다가 결국은 통합쪽으로 대세가 적당히 기울어져 갔다.

흔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도 있지만 그래서 중국의 저 유명한 林悟堂은 ‘인류에 있어서 불행의 시작은, 밀바다에 구멍이 뚫린 밥통(胃)을 달고 나올 때부터였다’고 말했는지 모른다.

그때에 우리가 절실히 느낀 것은 북한의 전기 통합문제는 모스크바에서 미리부터 광범위하게 토론되고 치밀하게 또 엄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야말로 빈틈없이 짜여진 정치적 스케줄에 의해 로마넝코 사령부에 전달된 것이라는 점이었다. 로마넝코 사령부에서 강조했던 「경제개발+전기=사회주의국가 건설」이란 공식을, 이문환이가 신물이 나도록 우리에게 들려줬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의 모든 통치, 심지어 북한의 전기통합까지도 크레믈린의 국가전략(혁명노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문환은 늘 아양을 떨며 자신의 인기 창출(?)에 약삭빠르다 해서 사람들은 이문환을 「참새」라 부르기도 했다. 한자리 해보자는 수작이니, 큰 감투를 노린다니 하는 쑥떡공론들이 많았다.

“저 참새가 하여튼 재주꾼이란 말이야” 박도선씨도 이문환을 가리켜 곧잘 「참새」라 불렀다.

결국 西鮮合同電氣를 「서북배전부」로, 北鮮合同電氣를 「동북배전부」로 고치고, 여기에 水豊, 長津江, 赴戰江, 虛川江 등 굵직 굵직한 수력발전소가 한자리에 모여 발전, 송전, 배전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로 묶어 소위 北朝鮮電氣總局(總局長 李文煥)이 새로 발족(1945. 11. 1 평양)됐던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남·북 분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첫번째 산물이기도 했다. 우리 동북 일행은 치스차프프(소련군 사령관)의 5개항으로 된 명령서(북조선전기총국 산하, 일체 전기시설물 반환에 관한 명령서) 원문(러시아문) 1통과 우리말 번역문 1통씩을 받아 들고 동북(함흥)으로 가기 위해 평양역으로 내달았다. 그날따라 늦가을의 찌뿌둥하고 음산한 날씨가 으스스 한기까지 느끼게 하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